시간이 덮어간 표면

July 2025 | 홍준영 기자

REVIEW

6.5-7.20
국제갤러리

Next Painting:
As We Are

시간이 덮어간
표면

릴스가 아닌 책을, 숏츠가 아닌 풍경을 봐야 한다지만, 끝없이 질주하는 이미지들과 이 순간 함께 달리지 않으면 영영 뒤처지진 않을까 두렵다.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소비하는 일은 속도감 중독에 대한 출처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따라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수반한다. 이미지와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 변형, 삭제되는 이미지 과잉 시대다. 그렇다면 이토록 발꿈치 떼고 달리는 이미지들의 경주에 참전하는 작금의 회화란. 역시 고요하고 느려터진 노인 같은 것일까, 아님 가속도의 이미지 지옥을 거슬러 올라온 느리고 평온한 천상의 동산인가.

어쩌면 회화란 그런 것이 아니다. 국제갤러리에 모인 6명의 회화는 매끈한 디지털 화면을 뚫고, 울퉁불퉁한 선과 붓 자국으로 등장한다. 귀환은 아니다. 이들의 회화는 이전에 숭배받던 고귀하고 엘리트적인 회화도, 감정과 빛을 드러내는 찐득한 회화도, 평면으로 회귀하는 납작한 회화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밀레니얼 세대의 회화 작가들은 디지털 기술, 미디어 환경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해 온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동시대의 속도감과 몰입감 있는 이미지를 포착해 가장 오래된 평면인 회화를 무기로 시대에 응답한다. 이들은 아날로그 화면을 훌쩍 뛰어넘어 디지털 화면보다도, 어떤 LED 화면보다도 더 선명하게 도래하고 있다.

비릿한 연필 선들로 빼곡하게 화면을 메우며 환상적이고 위태로운 흑백의 세계를 일구는 작가 고등어가 그 첫수를 둔다. 그의 채색화에선 흑연 선과는 또 다른 색채의 빡빡함이 화면을 메우고 있다. 미지의 풍경과 사물, 인물이 얽혀 이룬 그의 화면은 그 결과 어떤 이미지보다 불투명하고 단단한 표면을 선보인다. 반면 김세은의 표면은 가볍다. 김세은은 끝없이 변모하는 도시 공간을 시지각적인 신체 경험과 결부하며, 우리를 둘러싼 3차원의 풍경을 2차원 평면에 얇게 펼쳐 보인다. 갈비뼈, 어깨, 장기 등의 신체 기관과 골격의 일부가 도시 공간처럼 구성되기도, 도시 풍경의 조각들이 파편화, 재조립되어 우리를 감싸는 얇은 감각적 외피가 되기도 한다. 과감한 붓질이 두드러지는 이은새 또한 얕게 만져지는 겉면들에 집중한다. 얼룩, 오해, 타박상, 상처, 흔적, 남은 음식과 부스러기 등 표면에 부딪히거나 미끄러진 흔적을 수집한다. 이 흔적들엔 몇 년간 네덜란드에 체류하며 낯선 상황 속에 표류하는 작가 자신만의 감상이 담겨 있다.

유신애는 회화뿐 아니라 조각과 영상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회화야말로 지금과 같은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시대에 진정한 오브제의 감각을 일깨우는 매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소외와 종속, 기계와 기술, 영성, 신체 등 동시대적인 화제들에 비판적으로 주목하며, 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미디어적 사물을 어떤 디지털 화면보다도 매끈하고 정교하게 우리 눈앞에 가져다 둔다. 화면에 오랜 시간을 담아내는 방식은 전병구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전병구는 일상에서 접하는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들을 포착해 여러 겹의 레이어로 완성한다. 그가 포착한 찰나의 시간은 겹겹이 쌓인 얇은 물감층을 통해 영원과 같이 길게 늘어진다. 늘어진 시간 속엔 작가와 대상 사이의 감각 그리고 수없이 지나간 작가의 손길이 쌓여 있다. 정이지는 자신의 스냅 사진에서 출발해 풍경과 사물, 인물, 즉 자신 주변의 삶과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의 이미지는 당장이라도 스마트폰 앨범에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익숙함을 준다. 그러나 그것을 메운 경쾌하고도 담담한 붓질과 색감은 우리가 알던 냉랭한 디지털 화면이 아닌 그 너머의 실재를 따듯하게 재현하고 있다.

디지털 화면 속 다양한 해상도의 이미지와 실제 사물이 건네는 감각을 복합적으로 체험하는 6명의 젊은 작가들은 이를 자신만의 회화적 언어로 풀어낸다. 각기 다른 기법과 농도, 재료로 펼쳐 낸 그들의 표면은 매끄럽기도 거칠기도, 얕기도 깊기도 하다. 이는 미끄러운 화면 위 미세한 픽셀 모서리들이 눈을 찌르는 디지털 화면은 갖지 못하는 물질감이다. 그런가 하면 덧칠과 지움을 통해 긴 시간을 스친 시간 속에 스며 넣기도, 때론 압체적인 서사들을 평면으로 판판하게 눌러 내기도 하는 것. 그것이 회화다. 이것은 쉼 없이 흐르는 움직임으로 시간성을 만들어 내는 영상이 구현하지 못하는, 시간의 물리적 변형이기도 하다.

앞으로 도래할 회화는 더 이상 디지털 화면으로부터의 고리타분한 도피가 아니다. 동시대의 테크놀로지로 빚어진 이미지들을 여러 겹의 질감과 무게로 덧씌우며, 시간이 겹겹이 머물고 흐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표면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춰 응시한다. 이 표면을 지나간 시선과 시간을. ● 홍준영 기자

1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 유신애 <Innovation in Exploitation> 2025 리넨 캔버스에 유채 194×112.1×4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사진: 안선호